하회마을 임수 소나무 숲. 명당마을 중에서도 으뜸인 하회마을은 강물을 끼고 있다,

최연의 산 이야기<36> 소백산 4

하회마을이 서애를 길렀구나

〈西厓 〉

〈정감록(鄭鑑錄)〉의 '삼한 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에는 "영남(嶺南) 70개 고을은 땅이 후(厚)하고 산이 수려(秀麗)하여 인재(人才)의 부고(府庫)다"라고 적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회(河回) 양동(良洞) 삼개평(介坪)'이라는 속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문벌과 지체 높은 각 가문의 세거지(世居地) 가운데 으뜸이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풍산(豊山) 유(柳)씨 세거지인 안동 '하회(河回)마을'이다. 둘째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여주(麗州) 이(李)씨 세거지인 경주 '양동(良洞) 마을'이고, 셋째가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의 하동(河東) 정(鄭)씨 세거지인 경남 함양의 '개평(介坪)마을'이다.

명당마을 중에서도 으뜸인 하회마을은 소백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강물을 끼고 있는 계거지(溪居地)이다.

〈택리지(擇里志)〉에 보면 "무릇 시냇가에 살(溪居) 때에는 반드시 영(嶺)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평시(平時)에나 난세(亂世)에나 오랫동안 살기에 알맞다. 이러한 계거지(溪居地)는 영남 예안(禮安)의 도산(陶山)과 안동의 하회를 으뜸으로 삼는다. …(중략)… 하회는 하나의 평평한 언덕이 황강 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서애(西厓)의 옛 고택이 있다. 황강물이 휘돌아 출렁이며 마을 앞에 모여들어 깊어진다. 수북산(水北山)은 학가산(鶴駕山)에서 갈라져 나와 강가에 둘러 있다. 모두 석벽(石壁)이고 돌 빛이 차분하면서 수려해 험악한 모양이 전혀 없다. 그 위에 옥연정(玉淵亭)과 작은 암자가 바위 사이에 점점이 잇달았고 소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져 참으로 절경(絶景)이다"라고 적고 있다.

명당하회마을은 풍수 지리적으로 강기슭 가까운 곳은 행주형(行舟形)이고, 중앙지대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다.

행주형 지세(地勢)에는 돛, 키, 닻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길지(吉地)라 한다. 풍수서에는 그중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 마을이나 집안에 우물을 파면 끝내 표류하거나 복멸(覆滅)한다고 전한다.

연화부수형에서는 꽃과 열매를 함께 갖추고 있으며 그 향기 또한 그윽해 걸출한 자손을 배출하고, 오래 번성한다. 다만 마을 집터가 수면보다 낮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하회마을에 풍산 유 씨가 터를 잡기 전에 김해(金海) 허(許)씨와 광주 안 씨가 살았다. 두 가문은 행주형의 지대에 마을 터를 닦으면서 돛, 키, 닻 세 가지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오래가지 못하고 쇠망했다.

반면 연화부수형의 중앙지대에 터를 잡은 풍산 유 씨는 하회마을 감돌아 흐르는 낙동강의 수면과 거의 비슷한 높이로 주춧돌을 놓아 명당의 효험으로 말미암아 6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회마을에서 건너편 부용대(芙蓉臺)를 바라보는 백사장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소나무 숲은 단순히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다. 물과 바람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림(保護林)으로 이를 '임수(林藪)'라고 한다.

임수란, 산기슭부터 물가에 이르는 평지대의 나무숲을 말한다. 이러한 임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가장 큰 역할은 보안 기능이었고, 다음으로 군사적(軍事的)·풍치적 기능의 순 이었다. 임수의 기능은 한가지로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담당했던 곳이 많았다.

물가가 있는 마을에서 가장 큰 걱정은 물과 바람의 피해(風水害)다. 그래서 물 가까이에 인공의 숲을 조성해 물이 넘쳐날 때 숲이 물을 흡수하고, 물이 모자랄 때 숲이 물을 뿜어내는 순리적(順理的)인 치수(治水)를 했다. 치수를 한답시고 물가의 숲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 무식한 짓은 우리의 옛 조상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수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에 마을의 대소사를 치루는 만남과 소통의 광장이었다. '마을 숲'이라고도 불리는 임수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월에 윷놀이 하고 오월에 그네 뛰고 팔월에 씨름대회하고 시월에 강강술래 놀이하던 곳이요, 마을의 길흉사(吉凶事)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던 곳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01곳의 임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고 현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나가야 한다.

4대강 개발이라는 미명(美名)아래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철저히 파괴됐다. 지금도 속도전으로 진행 중이다. 이를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후손들로부터 엄중하게 제기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겨울, 보름달빛, 훤하다

푸르름이 떨어진 나무와 풀과 넝쿨들 사이로 수많은 길들이 열렸다. 그 위로 보름달이 떴다. 하늘을 보니 잎을 떨군 나뭇가지 사이에도 달빛이 꽉꽉 찼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갈비뼈 사이사이로 파고들어 오장육부까지 다 드러낸 빛이 온몸을 휘감는다. 야행성 동물들도 오늘은 나무 아래에 앉아 잠을 잘 것만 같다.

이렇게 넓었구나! 나뭇잎이 차지한 채 앞을 가렸던 공간이 넓다. 가려졌던 공간이 트이니 세상이 배는 넓어졌다. 훤하다. 가지와 가지 사이로 내려온 달빛이 나를 꼼짝 못하게 붙든다. 집에서 숲으로 통하는 길도 열렸다. 나무를 타고 오른 덩굴에 가려 보이지 않던 앞산도 등성이를 드러냈다. 집도 환해졌다. 마루에 늘어놨던 물건들이 지저분하게 보인다. 콩과 호두, 산초열매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치우고, 신문이며 학습지 같은 것들을 담아 귀퉁이에 두었던 종이상자도 치웠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톱과 망치와 막대기 등도 치웠다. 지난 봄 비닐봉지에 넣어 마루 밑에 두었던 털신과 등산화를 꺼내고, 대신 마루 앞에 뒹구는 고무신과 여름용 신발을 넣어두었다. 비로소 마루도 훤해졌다.

지난봄부터 겨울이 오기까지, 나무들의 잎에 둘러싸여 지내며 나는 편안했던가? 달빛 아래에 서니 세상과 다투며 불화했던 날들이 뚜렷이 보인다.

어둠이 내리기 전엔 집 앞 묵밭에 떼로 날아온 새들이 시끄럽게 울었다. 작은 새들이었다. 나뭇잎 속에 들면 보이지 않던 새. 나뭇잎 하나로 몸을 가렸던 새들도 하늘 아래 제 모습 하나 숨길 곳이 만만찮은 시절이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새들은 떠들었다. 떠들어 자신을 드러냈다. 감추기 힘들 때 숨으려 함은 오히려 드러냄만 못하다는 걸 내게 알려 주려는 듯 소란스러웠다.

혹시라도 뛰지 마라.
보름달 아래서는 조용히
달빛을 받아먹으며 걸어야 한다.

하늘을 다시 보니 키 큰 나무의 가지 몇 개 가로지른 공간이 조금 전보다 넓고 높다. 잎이 푸르던 계절엔 하늘도 뭉텅뭉텅 가려진 곳에서 살았던 나날이었다. 그래서 편안했던가?

벌거숭이로 드러나는 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겨울이다. 무엇인가에 싸여서 편안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대로 한 세상 보낸다 해도 좋겠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편안한 상태로 놓아두질 않는다. 어떻게든 나와 내 주위를 흔든다. 내 스스로도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을 변화시킨다.

앞을 막았던 푸르름이 사라지니 달빛도 넓어진 세상만큼 밝아졌다. 푸르름이 나를 둘러쌌던 시절의 달빛은 그만큼 어두웠다. 그러고 보니 해는 푸르름 위에서 더욱 환하고 달은 텅 빈 세상에서 더욱 환하다.

어젠 소금에 절인 푸른 배추를 붉은 고춧가루 옷을 입혀 땅 속에 넣었다. 처마 밑에 줄을 매고 걸어놓은 무청을 살피니 이미 푸른 빛깔을 유지한 채 바삭바삭 말랐다.

집 주위를 둘러보니 소나무의 푸른빛이 하늘 한 귀퉁이를 여전히 물들이고 있고 땅에도 얼어 죽지 않은 푸른 풀들이 키를 낮춘 자세로 드문드문 깔려 있다. 다가서는 겨울을 보지 못하고 대를 키운 놈은 몸을 뿌리 쪽으로 끌어당기며 둥글게 만들어 주저앉혀 땅에 붙였다.

오후 6시 30분이 막 지났다. 학교에 갔던 아들이 버스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다. 달이 뜨지 않은 날엔, 자가발전기가 내장된 손전등을 들고서 '짜그락 짜그락'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발전기를 돌려 얻은 전기로 길을 밝히면서도, 아들은 어둠이 무서워 달리듯 걸어서 집으로 온다. 잎이 지고 풀이 누워서 사방이 훤하게 트였다고는 해도 정류장과 집 사이에 가로놓인 골짜기가 어둠 속에 잠기면 소용이 없다.

오늘은 해보다 밝은 보름달이 길을 비추고 있으니 달빛을 온몸으로 받아 환해진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볼 수 있겠다. 혹시라도 뛰지 마라. 보름달 아래서는 조용히 달빛을 받아먹으며 걸어야 한다.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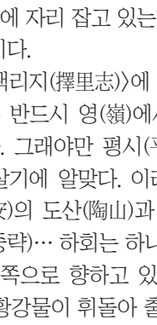
불교달력·불교용품·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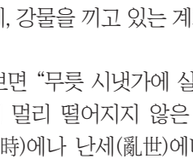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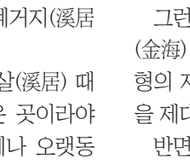
가 금지경전 세트 (3권+ 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가 경면주사금지 능엄신주 @7,000원(1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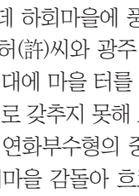
가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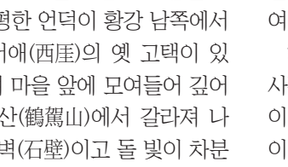

가 반야심경 한문 탑사경 @150원(500장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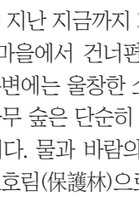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경전사경 제26호

가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권이상)


가 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권이상)


가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가 금강경 독송용 @2,400원(5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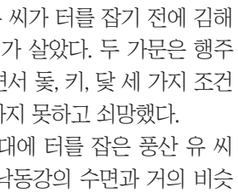
※ 불교서적 법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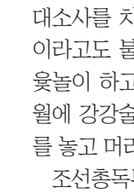
가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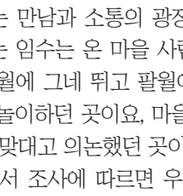
가 비림등(8cm) @3,000원(96개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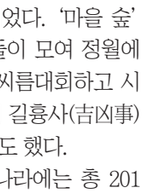
PVC 집게등표(100매)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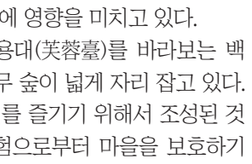
칼라등표(100매)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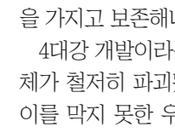

가 무연무취향(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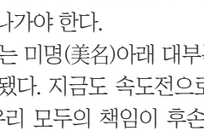

일반밀대(1Box 70개)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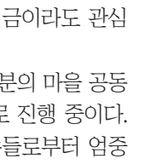

파라핀양초(1.8ℓ 12병) @53,000원


가 주목 백팔주 @8,000원(20개이상)


가 불자수지독송(칼라) @500원(200부이상)


가 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


가 금강경탑다라니 @150원(600장이상)


가 심베심재풀이 @600원(200개이상)

불교용품
-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 양초, 향, 다포, 악세사리
-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 공단등,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 예수재용품, 영가옷, 탑다라니
-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불교서적
-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 금지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불교달력
- 국6절(大) (30.5×31.0cm)
- 12절 (25.8×26.5cm)
- 차걸이 (9.0×15.5cm)
- 미니 (8.9× 9.5cm)
- 다이어리 (9.5×13.4cm)
- 탁상 (26.2×19.0cm)
- 한지 (30.0×45.5cm)
- 행복으로 가는 길(18.1×20.0cm)

12절 1,000원 (1,000부 이상)

8호 관음도

16호 부처님의 꽃

14호 반야동자

동진기획·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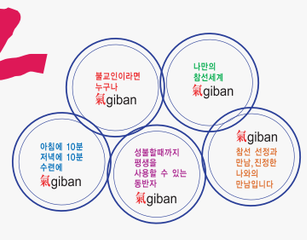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